

문재인, 오늘 광주 방문 성난 민심 달래기 김무성, “폭풍 혁신으로 정국 주도 나서자”

재보선 이후 여야 움직임 부산

동교동 인사 60여명 6일 회동 문재인 거취문제 등 논의할 듯

4·29 보궐선거 이후, 여야의 움직임이 부산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재보선 참패의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선거 승리 기세를 몰아 혁신을 통해 ‘성완중 파문’에서 벗어나 정국을 주도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선거 참패 이후, 퇴진 요구까지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4월 광

주를 방문, ‘호남민심 달래기’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표는 선거 패배에 대해 겸허히 반성한다는 뜻과 냉엄한 여론을 수용해 광주시민의 뜻을 받들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선거 패배에 대한 문 대표의 책임론이 완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이번 방문으로 호남 민심이 조기에 수습될지는 미지수다.

특히, 동교동계 인사 60여명은 오는 6일 회동해 문 대표의 거취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동교동계는 향후 당 운영 방향과 관계없이 우선 문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져 이날 어떠한 메시지를 내놓을 것인지 주목된다.

그러나 동교동계의 정치적 실체에 대한 비판이 있는데다 내부적으로도 지도부 사퇴 요구는 지나치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동교동계 모임에는 박지원, 설훈, 신계륜 의원 등은 참석하지 않는다.

이와함께 천정배 의원이 문재인 대표의 호남 방문 다음날인 5일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 내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한다.

천 의원이 ‘뉴 DJ’ 세력의 규합을 내세워 사실상 신당 창당의 깃발을 든 가운데 야권의 뿌리라 할 수 있는 DJ를 이를 ‘적통 경쟁’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덧붙인 호남을 겨냥한 야권 세력내 주도권 쟁탈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특히 천 의원의 DJ묘역 참배는 매주 화요일마다 DJ 묘역을 찾아온 동교동계 인사들의 ‘화요일모임’ 행사에 맞춘 일정이어서 동교동계 일각의 문재인 대표 책임론 제기 움직임과 맞물려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당 내부적으로는 4·29 보궐선거에서 참패를 극복하기 위한 강도 높은 쇄신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안방까지 내준 마당에 쇄신은 선택이 아닌 정치적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라는 것이다. 문재인 대표도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를 의식한 듯 선거 직후인 지난달 30일 고위정책회의에서 주요 당직자들에게 쇄신안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지난 2일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및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양당 대표 합의문’을 발표하기 위해 자리에 앉고 있다. 왼쪽부터 조원진 여당 간사, 김 대표, 문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연합뉴스

김동철 의원 새정치 원내대표 출마 선언 “호남을 당 혁신 진앙지로 만들어야”

광주에 지역구(광산 갑)를 둔 3선의 김동철 의원이 3일 “총선 승리, 정권교체라는 국민의 소망이 반드시 열매를 맺도록 간절히 뛰겠다”며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뿌리부터 강한 정당, 아름답게 화합하고 새롭게 혁신하는 정당, 디테일에 강한 명품정당을 만들어 응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당의 심장이라는 호남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며 “당이 호남을 무시하고 홀대한다는 인식의 확산을 지금 막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난해 순천·곡성 참화에 이은 광주 서을 패배는 뿌리부터 흔들리는 당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호남이 이제 당에 대한 분노의 진앙지로 바뀌고 있다”며 “호남을 다시 당 혁신의 진앙지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자강불식(自強不息), 국민이 OK



할 때까지 혁신해야 승리할 수 있다”며 “저를 포함한 우리 호남 출신 국회의원들부터 성찰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재·보궐선거 이후 ‘아권연대’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과 관련, “분열이 패배의 근본 원인이고, 연대와 통합이 유일한 해법처럼 제시되는 것이 합당하지는 의문”이라며 “이기는 정당으로서의 경쟁력을 찾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여전히 해법은 경제에 있어 경제정당의 길은 없다”며 “그것이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당, 신뢰받는 수권 대안 정당으로 가는 길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당내 비주류로 분류되는 김 의원은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주선 “천정배신당 수심명 합류할 것”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은 지난 1일 4·29 광주 서을 보궐선거에 당선된 천정배 의원이 신당을 추진할 경우 합류 인사가 수심 명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박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신윤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 ‘탈당 규모가 수십 명 수준이라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그렇게 어렵 생각해본다”며 “이대로는 안 된다는 나름의 결론이 서게 되면 대안의 길을 모색하게 될 의원도 상당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재보선 결과는 당의 혁신 지지기반인 광주와 성남, 관악 등지에서 호남 유권자가 새정치연합을 버렸다는 뜻”이라며 특히 광주 선거 결과가 ‘친노(친노무현) 지도부’에 대한 호남 민심의 표출이라고 해석했다.

박 의원은 특히 “호남 민심에 정확한 답을 하려면 말로만 당을 바꾸겠다고 해서 믿어주지 않는다”며 “당을 바꾸는 첫 걸음은 지도부가 총사퇴를 해 당의 간판



과 얼굴을 바꾸는 것”이라고 지도부 총사퇴론을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전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지도부 총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민심을 외면한 채 우리끼리 ‘마이웨이’를 하게 되면 이 당은 다시 세워질 수 없다”며 “신당 바람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책임질 사람이 책임지면서 당을 바꾸고 고쳐 나가면서 호남 민심에 호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이가 “호남뿐 아니라 수도권을 포함, 우리 당의 의원들이 우려와 불안을 넘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걸 절감하고 있다”며 “무조건 단결이라는 슬로건으로 의원들을 묶으려고 할 게 아니라 신당에 갈 필요가 없고 신당은 성공할 수 없다는 확신을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김무성, 문재인 누르고 대권주자 지지도 첫 1위 강기정 ‘국가기념일 기념곡 지정 법률안’ 발의

정당지지도 새누리 오름세

‘성완중 파문’ 악재 속에서도 4·29 재보궐선거를 압승으로 이끈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차기 대권주자 지지도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를 누르고 1위에 올랐다.

종합편성채널 MBN이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달 30일과 1일 이틀동안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결과, 차기 대선후보로서 김 대표의 지지도는 23.3%로, 21.3%가 나온 문 대표의 지지도를 넘어섰다.

김 대표가 차기 여야 대선후보 주자 가운데 지지도 1위로 나타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24일 성인 남녀 2500명을 대상으로 한 4월 4주차 리얼미터 주간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0%p)에서는 김 대표와 문 대표의 지지도가 각각 13.5%와 26.7%를 기록했었다.

김 대표의 지지율은 보궐선거를 기점으로 수직 상승한 반면, 문 대표는 뚜렷한 하락세를 보인 것이다.

정당 지지도도 새누리당은 41.2%로 오름세를, 새정치민주연합은 28.0%로 내림세를 타면서 재보선 효과가 그대로 반영됐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기념곡 연주 정부 개입 방지”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음에도 정부가 기념곡 지정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이 3일 정부가 국가기념일의 의의를 담은 기념곡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기념일의 기념곡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정부가 국가기념일의 의의를 담은 기념곡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때 국가기념일의 제정 배경을 우선 고려하며 동시에 해당 국가기념일 관련 전문가·기관·단체(유가족 포함) 등의 의견을 수렴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기념곡 지정 절차 및 기념일 행사에서의 기념곡 연주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정부의 자의적인 개입을 방지했다.

강 의원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 5·18, 4·3행사 등에서 기념곡 제정을 의의적으로 누락 방화하면서 소위 ‘역사 지우기’를 자행하고 있다”면서 “이 법이 통과되면 국가기념일 기념곡을 둘러싼 각종 논란을 일정부분 해소할 것이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지역 자산 1위 금고
소액(3억이하) 다수인을 위한 우대 대출
아파트 담보, 분양잔금 대출 특판

한도는 최고 **금리는 최저**

- ☑ 햇살론대출
- ☑ 임대보증금대출
- ☑ 정부정책자금대출
- ☑ 일일상환대출

※ 근저당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양림지점 652-9203 서동본점 720-2828 월산지점 364-7557

서양새마을금고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백명숙 이사, 유경선 원장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시까지...

중매잘한다~ 성사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재직)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광주서석초등학교 졸업 전남대학교

초혼	추천 회원	재혼
남성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7-45세 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28-47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삼성, 현대, LG 직원 28-47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교사, 교수 28-49세	여성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변호사, 회계사, 변호사 26-3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학원(음악)원장, 교사 27-42세 스텝어디스, 영양사 26-42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복 27-36세	남성 의사, 변호사 32-65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 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 대기업 간부 36-59세 회사원, 자영업 33-67세 '우승신 여성' 희망 31-58세
여성 VIP 희망 여성 29-53세 학원(음악)원장, 교사 27-63세 공무원, 교사 32-58세 간호사, 회사원 29-48세 자영업, 교사 35-64세 '우주녀 남성' 희망 28-48세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하이랜드빌 606
02) 521-4405
호남 지사 (063) **275-7766**